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고린도후서 1:1~11, 21~22; 2:1~11.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도록 도움을 준다. (30~35분)

여러분의 삶에 슬픔, 고통, 불안을 일으켰던 사건들에 대해 생각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 성신은 고통의 시기에 어떻게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는가? (요한복음 14:16~18, 26~27 참조)

누가 성신을 보았으며 또 왜 보았는지를 찾아보면서 고린도후서 1장 1~4절을 읽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우리가 영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훗날 칠십인으로 부름받은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가 들려준 다음 실화를 읽는다.

젊은 어머니가 남편과 네 자녀를 남기고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였다. 장례식에 참석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비통함을 느끼며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엄청난 고통이 이 젊은 가족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는지에 관해 의아해했다. 장례식이 끝날 무렵, 남편은 조용히 일어나서 연단으로 갔다.

“저는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슬픔과 관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를 잃고 처음 한 시간 동안은 어떻게 이 슬픔을 이겨 낼 수 있으며, 아내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부드럽고 평화로운 영이 제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모든 일이 잘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 대해서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잘 해나갈 것입니다.”

“아내를 잃은 이 남편에게 임했던 위로의 영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위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대의 영원한 동반자”, 성도의 빛, 1981년 3월호, 6쪽)

- 이 이야기에서 누가 위로를 주었는가?
- 이 이야기는 구주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행하신 것과 어떻게 비슷한가?
-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왜 그 시련을 없애주시기보다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여러분은 생각하는가?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찾아보면서 고린도후서 1장 7절을 읽는다.

- 위로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7절과 3~4절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가?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바울에게 위로를 가져다주었는지를 찾아보면서 8~11절을 읽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기도가 어떻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가져다주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가?

고린도에서 일부 사람들이 음행으로 파문되었으며(고린도전서 5:1~6 참조), 그곳 성도들이 그 사람을 심히 꾸짖었다. 바울은 그 사람이 충분히 고통을 받았다고 적었다. 고린도후서 2장

6~8절을 읽고 질문한다.

-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권고하였는가?
- 그들이 이 사람을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 그들이 그 사람을 위로하고 또 용서하기를 거절한다면,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7절) 수도 있다고 바울은 말하였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 고린도후서 2장 9~11절을 읽고 용서하지 않는 것에 따르는 위험을 찾아본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보다 유리하게 되는가?
- 어떤 방법으로 사탄은 유리하게 될 것인가?

고린도후서 2장 7~11절을 교리와 성약 64편 9~10절과 함께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64편 9절을 읽고 또 질문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왜 더욱 커다란 죄인가?

다음 말씀을 읽는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을 향한 그 이웃의 발전을 막는 것이 된다. 이러한 행위는 악마같은 것이며 또한 우리의 동기는 기독교인답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살아 있는 영혼의 발전을 저해하고 또 그에게 속죄라는 용서의 축복을 주지 않는 것이다. 이 철학은 영혼을 파괴하려 고안된 불순한 동기에 젖어 있는 것이다.” (리안 지 오프과 시 맥스 칼드웰, 교리와 성약의 신성한 진리, 전2권 [1993년], 1:314)

- 살인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살인보다 큰 죄가 될 수가 있는가?
- 간음한 자, 또는 어린이를 학대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간음 또는 어린이 학대보다도 큰 죄가 될 수 있는가?

그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죄는 매우 큰 죄이지만, 우리가 만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타락시키게 된다. 사탄은 사람들 사이에서 분열을 야기시키는 방법으로써 용서하지 않는 영을 사용한다.

동정심에 대한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의 설명을 읽는다.

“우리의 이웃에 대한 참된 동정심은 참된 성도의 표시이다. 그것은 그들이 받는 고난에 대한 슬픔에, 그것들에 대한 연민과 공감에,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자비, 애정, 그리고 친절을 보이는데에 있다.” (몰몬 교리, 152쪽)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고린도후서

저자. 바울은 자신의 먼젓번 서한에 대한 확인 편지로 고린도후서를 적었다. (고린도전서에 대한 소개, 174쪽; 고린도후서 1:1; 10:1 참조)

대상.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독자와 같은 사람들, 즉 교회 회원들(고린도후서 1:1 참조)과 또한 아가야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고린도후서를 적었다. 아가야는 본래 그리스의 모든 지방을 포함하는 로마의 영토였다. 그릇된 교사들의 고소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불화가 일어났고 그것은 날로 커져갔다. 바울은 이 고소에 대해 답하고 또 성도들을 신앙 안에서 굳건히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적었다.

역사적 배경.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적은 직후에 그는 가까운 친구 디도를 고린도로 보내어서 자신의 편지를 잘 받아보았는지를 확인하게 하였다.(고린도후서 7:13, 15 참조) 바울이 디도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에베소에서 그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소요가 일어났고(사도행전 19장 참조), 그는 마게도냐로 피신을 하였다.(고린도후서 1:8~11 참조) 디도가 그와 다시 합류하였을 때(고린도후서 7:6 참조) 바울은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되었다. 그릇된 교사들이 그곳에서 교회로 침투하여서 돈을 벌기 위하여 속기 쉬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이 교사들은 가난에 쪼들린 예루살렘 성도들을 원조하기 위해 모은 돈을 취하였다고 바울을 고소하였다. 그들은 또한 사도로서의 그의 권세에 도전하였다. 디도가 가져온 걱정을 들은 후에 바울은 서기 55~57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서 고린도후서로 알려진 이 서한을 적었다.

특징. 바울은 여느 다른 편지에서보다도 이 편지에서 자전적인 내용을 더욱 많이 썼다.(고린도후서 11~12장 참조) 그는 복음 안에서의 그의 권세, 그리고 복음의 대업에 대한 그의 충성심에 대해 의심을 하는 고린도의 지역 비판자들에게 답하기 위해 그렇게 하였다.